

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

2025. 4. 3.(목)

상호관세 대응, 내주 자동차 긴급 지원책 나온다!

- 중소·중견기업 등 취약부문과 업종에 대한 후속 대책도 신속 준비 -
-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개최 -

□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.3.(목) 16:00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*를 개최하였다.

* 참석자

: (정부) 한덕수 권한대행, 최상목 경제부총리, 방기선 국무조정실장,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, 신원식 국가안보실장, 강인선 외교부 2차관, 박성택 산업부 1차관,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
(민간) 삼성·SK·현대차·LG 등 기업 통상담당 임원, 대한상의 상근부회장

○ 오늘 회의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(한국시간 새벽)함에 따라, 민관 합동으로 그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.

□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“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할 것”이라고 하며, “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해야 한다”고 강조하였다.

○ 아울러, 한 권한대행은 “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대책을 다음 주까지 마련하여 발표하고,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·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○ 또한, 정치권에 대해 통상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기업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.

□ 한편,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이번 관세 조치로 대기업은 물론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, 정부의 과감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, 우리 산업 생태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.

○ 또한, 우리 기업의 경우 제3국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해당국의 대응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 이승규	044-200-2211
		담당자	사무관 권회근	044-200-2212
		담당자	사무관 이정우	044-200-2227
<공동>	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 김영만	044-203-5620
		담당자	사무관 신상훈	044-203-5622
	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 안홍상	044-203-5650
		담당자	서기관 정지선	044-203-5651

